



제6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6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존재와 성장

Existence and Growth

일시_ 2016. 10. 6 (목) 09:00~17:00

장소_ 가톨릭대학교 International Hub 컨퍼런스룸 (IH366)

주최_ 가톨릭대학교

Date_ Oct. 6 (Thur) 09:00~17:00

Venue_ Conference Room (IH366) International Hub

Host_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04 **초대의 말씀** | 박영식 총장 (가톨릭대)

06 **축 사** |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서울대교구)

10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의 배경**

12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16 **프로그램**

19 **Session 1**
 사 회 자 | 윤정우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발 표 | 제4회 BWL 가톨릭 인본주의 상

19 **Session 2**
 사 회 자 | 윤정우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기조연설1 | Hiroshi Yamamoto 교수(일본 Sophia University Junior College Division 총장)
 “Man and Nature”

93 기조연설2 | Br. Raymundo Suplido 교수(필리핀 De La Salle University 총장)
 “T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93 기조연설3 | Han-Sun Chiang 교수(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총장)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s”

107 토 론 | 이상훈 교수 (가톨릭대 환경공학전공)

109 **Session 3 --- 학생참여 프로그램**
 사 회 자 | 이상민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109 **Session 4 ---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사 회 자 |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개 회 사 | 구분만 교수 (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발 표 1 | 조성호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심리생태계와 동반성장”
 발 표 2 | 이도흠 교수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생명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불교적 분석과 대안”
 발 표 3 | 오세정 교수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한국 창세신화 <창세가>에 나타난 자연, 신, 인간의 관계”
 발 표 4 | 안성조 교수 (제주대 법학과), “법과 진화론”
 토 론 | 진행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철학전공)

201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04 **Message from the President** | Fr. Yeongsik Pahk (President, CUK)

06 **Congratulatory Remarks** | Auxiliary Bishop of Seoul Timothy Gyoung Chon YU

10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12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16 **Program**

19 **Session 1**
 MC |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Award Ceremony | The 4th Annual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Winner
 Announcement

19 **Session 2**
 MC |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93 Keynoter 1 | Prof. Hiroshi Yamamoto (President : Sophia University Junior College Division in
 Japan), “Man and Nature”

93 Keynoter 2 | Prof. Br. Raymundo Suplido (President : De La Salle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T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107 Keynoter 3 | Prof. Han-Sun Chiang (President :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Taiwan)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s”

107 Discussion | Moderator : Prof. Sanghoon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UK)

109 **Session 3 ---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MC | Prof. Sangmin Lee (The Catholic College, CUK)

109 **Session 4 ---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Moderator | Prof.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UK)
 Opening Address | Prof. Bonman Koo (Dean of The Catholic College, CUK)
 Presenter 1 | Prof. Seongho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CUK)
 “Psychological Ecosystem & Growing Together”

109 Presenter 2 | Prof. Doheum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The Buddhist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the Symbioses between Humans
 and other Species”

109 Presenter 3 | Prof. Sejeong O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Nature-God-Human Relationships in Korean Creative Myth (Chansega)”

109 Presenter 4 | Prof. Seongjo An (Department of Law,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and Evolution”

201 Discussant | Prof. Joonsuk Kim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UK)

Themes of the Forum

| 초대 말씀

| Message from the President



“제6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The 6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톨릭 정신에 따라 평생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원길 선생의 영성과 유훈을 기리고자 2011년에 시작된 본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가톨릭 인본주의에 관한 사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존재와 성장 : 인간과 자연공동체의 공존과 동반성장”입니다.

포럼 주제에 대한 학문적 심층 논의를 위하여 포럼은 4부로 진행됩니다. 제1부에는 “제4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 상(賞)은 이원길 선생이 실천한 가톨릭 정신을 사회 안에 확산,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포럼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모범적 삶을 사는 분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30여 년간 생명·환경 보호를 삶으로 실천하고,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현장에 도입해 ‘산자연학교(山自然學校)’를 설립한 정홍규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제2부에서는 기조 강연으로 일본 Sophia University Junior College Division 총장 Hiroshi Yamamoto의 “Man and Nature”와 필리핀 De La Salle University 총장 Br. Raymundo Suplido의 “T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총장 Han-Sun Chiang의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s”가 발표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제3부는 가톨릭 대학생 토론대회와 외국인 대학생 연설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등 학생의 참신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올바른 가치관을 진지하게 모색할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제4부에서는 국내 학자들이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해 온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함께 공유하는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이 있을 것입니다.

본 포럼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발전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에 의한 생태환경 파괴가 만연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가톨릭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성, 영성, 지성을 고루 갖춘 윤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 인간과 자연공동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생태 및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신부

박영식

On behalf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 am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6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e Forum was launched in 2011 to honor the noble spirit and faith espoused by the late Bernard Wonkil Lee, who practiced the love of God and neighbor throughout his life. The Forum provides a place for outstanding individuals from home and abroad to exchange insights and experiences regarding Catholic humanism. The theme for this year's forum is “Existence and growth: co-existence and shared growth between man and the natural community”

For in-depth discussions, we have organized a total of four sessions around this year's theme. In the first session, “The 4th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presentation ceremony will be hosted. The award was established to spread and promote in our society the spirit of Catholicism, the kind practiced by Bernard Wonkil Lee. It recognizes individuals leading an exemplary life in areas related to the theme of the Forum. The recipient this year is Father Augustino Honggyu Jeong who has for 30 years dedicated his life in practicing life and environment protection and has introduc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o the education scene by establishing the ‘Mountain Nature School.’

The second session is devoted to keynote speeches including “Man and Nature” by Hiroshi Yamamoto, the president of Sophia University Junior College Division in Japan, “T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by Br. Raymundo Suplido, the president of De La Salle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and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s” by Han-Sun Chiang, the president of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Taiwan.

The third session features student-led events including the CUK student debate, a Korean speech contes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n awards ceremony for the “idea contest,” all of which will provide a forum where students exchange novel ideas and cultivate ethical values. Finally, the fourth session presents a symposium organized by the CUK's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where domestic scholars present and discuss their research findings on the theme of the forum.

The present forum will present a valuable opportunity to awaken within us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time of rampant ecological destruction by mankind, through the process of seeking ways to coexist harmoniously and making shared growth with the nature. It will also contribute to fostering university students equipped with decency, spirituality, and intelligence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 sincerely hope that this forum will spread the social perception to protect the life and environment, enabling us to reflect deeply about the natural community the man lives in.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September, 2016
Fr. Youngsik Park
Presi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ungsik Park

| 축사

| 축사



찬미 예수님!

가톨릭대학교에서 “제6회 버나드 원길 리(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공동체: 존재와 성장”입니다. 포럼의 주제인 ‘존재와 성장’은 ‘인간과 공동체’라는 10년의 대주제 중 6번째에 해당하는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와 성장’이라는 주제는 아마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동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업화 이후로 인간은 줄곧 인간만의 ‘존재와 성장’을 추구해왔습니다. 자연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인간의 존재와 성장을 위한 도구였고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20세기의 눈부신 과학발전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기 보다는 자연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착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인간은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의 삶이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온전히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만의 존재와 성장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생태 환경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인간이 초래한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216~221항). 생태적 회개란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를 해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는 인간이나 하느님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라는 말을 사용해왔는데, 자연 세계에 저지른 잘못이 곧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와 같다는 인식에서 ‘생태적 회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대개 가난한 이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환경파괴의 결과를 두고도 빈부의 격차, 엄청난 불평등과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은 훼손된 자연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고통받는 인간의 문제와 고통받는 자연의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고 함께 극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통합생태론).

‘생태적 회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새로운 방식, 생활방식의 변화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소비주의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내다버리는 문화와 결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떻게 단순 소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자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난과 불의에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할 때, 즉 우리들 모두의 구체적인 생태적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인 생활방식의 변화, 생태적 삶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존은 인간과 자연이 동반 성장하는 기쁨이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제6회를 맞이하는 ‘버나드 원길 리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자연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서,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창조질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주교 유경춘교

Congratulatory Address

Praise be to Jesus!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you on the occasion of the 6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eld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year's international forum is entitled "Human Beings and the Community of Nature: Existence and Growth." As I understand, 'Existence and Growth,' is the 6th secondary topic under the grand theme of 'Human Beings and the Community of Nature' intended to be discussed for 10 years. I think the topic 'Existence and Growth' refers to the co-existence, and mutual growth of mankind and nature.

Since the onset of industrialization, mankind has pursued 'Existence and Growth' as something exclusive only to human beings. Nature has not been an object of respect but only an instrument for the existence and growth of human beings and to be exploited by them. The dazzling scientific breakthroughs of the 20th century misled human beings to believe they are the masters of nature rather than a part of it. Mankind did not respect the God-bestowed order of nature but triggered ecological crises in many different ways. Though belatedly, human beings realized that the lifestyle of exploiting nature is neither sustainable nor capable of ensuring the integral existence and growth of human beings.

Therefore, 'Sustainable Development' emphasizing the co-existence of man and nature rather than the exclusive existence and growth of human beings has become the norm of the day. Time has come when the importance of nature and ecological environment is driven home to us.

In his encyclical letter 'Laudato Si;' Pope Francis, the Holy Father, examined the man-made ecological crises of today in depth and emphasized that 'ecological repentance' to overcome such crises (Lines 216~221) is needed. Ecological repentance means man's repentance of damages inflicted by them on the earth in various ways. 'Repentance' is generally used in the context of wrongs perpetrated by a human being to other human beings or God, but the term 'Ecological Repentance' was coined as inspired by the belief that damages inflicted by us on nature are no different from sins committed by us to ourselves, our neighbors, and the Lord. That is because everything is closely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When water becomes polluted, it is mostly the poor who drink the polluted water. The divide between the rich and poor, tremendous inequality and irrationality persist in connection with the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Our faith calls us to take care of a damaged ecology and our brothers and

Congratulatory Address

sisters who suffer from it. Accordingly, the Holy Father underscored that the issue of suffering sustained by human beings is not different from the issue of suffering sustained by nature, and the issues are unified into one that must be addressed as such (Integral Ecology).

Important to 'Ecological Repentance' is the adoption of a new approach to our life and a change in our lifestyle. The Holy Father asked us to free ourselves from consumerism and depart from the culture of 'throwing away things.' How can we lead a simple and plain life? We should do so because such a lifestyle is not only good for the benefit of nature, but also for the sake of our brothers and sisters suffering from poverty and injustice.

Human beings cannot live on without being in harmony with nature. When we respect and protect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God's creation through all our collective and specific ecological repentance, through specific changes in our lifestyle, and through specific actions in favor of ecological life, a beautiful co-existence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will be enabled. Such a co-existence will build a foundation on which the mutual growth of human beings and nature will be fostered and this will be 'good news' to all of God's creation.

I hope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marking its 6th anniversary will result in a valuable momentum to awaken us to our duty as human beings to protect God-given nature and lead many others to manifest the order of God's creation in their lifestyle. May God's grace and love be given to all who participate in the forum.

Thank you.

October, 2016
Vicar General Timothy Gyoung-chon Yu
Auxiliary Bishop
Archdiocese of Seoul

포럼의 배경

2009년 9월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교포 기업가 이덕선·이덕형 형제는 본 대학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이들 형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는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따라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어 간 분으로 회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마음깊이 간직한 채 삶을 매우 낙천적으로 이끌어간 존경할 인품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은 우리 가톨릭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사랑, 봉사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것은 진리와 정직, 사랑과 남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인생을 매우 뜻 깊게 살았던 고인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이덕선·이덕형 형제의 기부금을 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재원으로 Bernard Wonkil Lee Fund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펀드에 기초하여 운영할 포럼을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이란 이름을 부여 하고, 그의 정신에 따라 가톨릭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다.

본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톨릭 정신에 따라서 영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인본주의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이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로써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개최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주제 방향으로는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와 책임" 등으로 설정하여 이런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을 깊이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톨릭 인본주의 및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the forum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Washington D.C. based Korean-Americans, donat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its development in September 2009. The Lee brothers, as successful businessmen, do not hesitate to name Bernard Wonkil Lee, their father,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ir lives. They recall their father was a man who strived to establish a holy Catholic family in the faith of God. Bernard Wonkil Lee was a respectable man who led an optimistic life with a proactive way of thinking, faith in God,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Catholic humanism upheld by Bernard Wonkil Lee is consistent with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Catholic University: honesty, love, and service. In other words, the spirits of our university are what he believed in and the way he lived. In this regar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cided to form Bernard Wonkil Lee Fund based on the donation made by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and its consequential profits. And the forum to be hosted by the support of this Fund shall be named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ereafter referred as the BWL Forum). The forum shall become a venue for instilling the philosophy of Catholic humanism.

The purpose of the forum is to nurture college students equipped with spiritual power, personality, and intellect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t is our hope that this will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bond members of a community. In turn this will help to uphold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university and eventually realize Catholic humanism in society. This forum shall be an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inviting renowned speakers from home and abroad.

The BWL Forum will be held every year under the general theme of "Mankind and Community." For the first 10 years, the directions of the discussions sha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forum proceeds, the discussions will be intensified and the forums will serve as a venue to look into the philosophy of Bernard Wonkil Lee an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atholic humanism, mankind and community.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자기희생(self-sacrifice)과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self-giving) 삶을 사신 분이다. 그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사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특히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개척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확고부동하고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Maryland주 Gaithersburg에서 2001년 11월 4일 84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큰 아들 이덕선 박사는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소망”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정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불치의 낙천가 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낙천주의,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희망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습니다. 항상 작든 크든 간에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고 이 세상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현재의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결코 불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바른 말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 사냥꾼, 낚시꾼, 아마추어 엔터테이너, 그리고 준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꿈을 꾸는 개척자였으며, 무엇인가 일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착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선 튼튼한 가톨릭 성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가톨릭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향 동네의 문맹을 퇴치시켰습니다. 그는 많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는 갯벌을 천수답으로 변경하여 수백 가정의 주민들에게 농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물잔의 반이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이 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과 나누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Bernard Wonkil Lee lived a life of self-sacrifice and self-giving. He lived the life of a happy man, he was a positive thinker, and he was a pioneer in spirit and deeds.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deep, unshakable Catholic faith. He died on November 4, 2001 when he was 84 years old in Gaithersburg, Maryland.

His eldest son, Dr. Matthew Duxun Lee, says whenever he thinks about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what comes to his mind first is his father. He remembers:

“My father was an incurable optimist. His life was the epitome of optimism,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He found happiness in all things, small and large. My father was indeed a happy man who enjoyed his life on this earth to the fullest. He enjoyed the present. He appreciated what he had and never complained about what he didn't have. He was a person of impeccable integrity and honesty. He was never afraid to speak the truth and express his true feelings. He was a farmer, a hunter, a very good fisherman, an amateur entertainer and a paramedic among other things. He was a dreamer, a pioneer, a builder of all things and a leader. But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faith.

My father had many accomplishments in his lifetime. He built a strong Catholic family. He built three Catholic communities. He eliminated illiteracy in our hometown. He fed the hungry. He created farmland for hundreds of people by converting tidal mud flats into rice paddies. How did he do all those things? It was possible because my father was an optimist and positive thinker, and he had faith in God. For him the cup was always half full, not half empty. His whole life was about faith. It was about sharing and giving. It was for other people not just for himself.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베르나르도 이원길 응의 생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고 배운 아버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행복하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양육된 것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제가 받은 훌륭한 가정교육과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 삶의 기초가 된 매우 귀중한 가치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의 아들이 된 특권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계속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수 있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남에게 잘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응은 1917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황해도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8년 후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연안 반도에 있는 갈인재라고 불리는 조그만 어촌 마을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을 탈출하여 강화군 교동도에서 1954년까지 3년을 살았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응과 그의 가족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의 땅이 되어버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이사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맏아들인 마태오 이덕선, 셋째 아들 베드로 이덕성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나머지 가족과 함께 198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미국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는 은퇴 후에는 아들과 딸들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의 소명을 계속하였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응을 추모하는 뜻으로 그의 가족은 Maryland주 Potomac의 매우 아름다운 곳에 수녀원을 지어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라는 수녀회에 기증하였다.

그는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19명의 손녀, 손자, 증손녀와 증손자들을 남겼다. 그의 다섯째 아들인 바오로 이덕호 신부는 현재 워싱턴 대교구의 신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부인 황 수산나는 2015년 9월 97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These are the things that I have witnessed and learned from my father. I am very fortunate that I was born and raised by happy, generous and loving parents. I attribute whatever I have accomplished to my upbringing, especially to my father. He has instilled in me those priceless valu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my being. I am thankful for the privilege of being my father's son. I learned everything from him. He taught me how to become a happy person and remain a happy person. He taught me how to be a positive thinker and a positive person. He told us to be always good to others.”

Bernard Wonkil Lee was born in the northern part of Hwanghae-do in 1917 but moved to a small seaside village called Karinjae in the Yeonan peninsula when he was a teenager with his mother and siblings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who had built schools and taught in various parts of Hwanghae-do. Mr. Lee and his family had to flee from his hometown during the Korean War and lived in Gyodong-do for three years until 1954.

Mr. Lee and his family moved to Seoul as he could not return to his hometown because it became a part of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He lived there until they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8 to join his sons, Matthew and Peter. He spent some of his happiest years there. Although he was retired, he helped his sons' and daughter's businesses, caring for his grand children but more importantly continuing his vocation of helping people in any way he could. In his memory, his family has built a convent for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on a beautiful location in Potomac, Maryland.

He is survived by his five sons, one daughter, their spouses, and his nineteen grand and great grandchildren. His son, Fr. Paul Lee, is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His wife, Susanna Hwang, passed away on September, 2015, at the age of 97.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2016년 10월 6일(목)

제1세션 (IH366)		
9:30~10:50	사회자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환영사	박영식 총장 (가톨릭대)
	축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서울대교구)
	영상	이원길 선생의 삶
	발표	제4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시상식 제4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수상자 연설

제2세션 (IH366)		
11:00~12:30	사회자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발표1 Man and Nature	Hiroshi Yamamoto 총장 (일본 Sophia University Junior College Division)
	발표2 T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Br. Raymundo Suplido 총장 (필리핀 De La Salle University)
	발표3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s	Han-Sun Chiang 총장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제3세션 학생참여 프로그램(IH366)		
12:30-15:00	사회자	이상민 교수 (가톨릭대 학부대학)
	대회	제5회 재한 외국인 대학생 연설대회 제6회 가톨릭대학생 토론대회
	발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시상	제3세션 전체 시상식

제4세션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IH267)		
13:50-17:00	사회자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개회사	구본만 교수 (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발표1 심리생태계와 동반성장	조성호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발표2 생명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불교적 분석과 대안	이도흠 교수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발표3 한국 창세신화 <창세가>에 나타난 자연, 신, 인간의 관계	오세정 교수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발표4 법과 진화론	안성조 교수 (제주대 법학과)
	토론	제3세션 전체 시상식 진행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철학전공)

October 6st (Thur) , 2016

Session 1 (IH366)		
9:00~10:50	MC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Welcome Address	Fr. Yeongsik Pakk (President, CUK)
	Congratulatory Remarks	Auxiliary Bishop of Seoul Timothy Gyoung Chon YU (Archdiocese of Seoul)
	Video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ward Ceremony	The 4th Annual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Winner Announcement

Session 2 (IH366)		
11:00~12:30	MC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Keynoter 1 Man and Nature	Prof. Hiroshi Yamamoto (President : Sophia University Junior College Division in Japan)
	Keynoter 2 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Prof. Br. Raymundo Suplido (President : De La Salle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Keynoter 3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s	Prof. Han-Sun Chiang (President :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Taiwan)
	Discussion	Moderator : Prof. Sanghoon Lee

Session 3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IH366)		
12:30-15:00	MC	Prof. Sangmin Lee (The Catholic College, CUK)
	Contest	5th International Student Speech Contest 6th CUK Students Debate Contest
	Presentation	BWL Catholic Humanism Student Contest : Winner Presentation
	Award Ceremony	Announcement of Winners

Session 4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IH267)		
13:50-17:00	Moderator	Prof.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UK)
	Opening Address	Prof. Bonman Koo (Dean of The Catholic College, CUK)
	Presenter 1 Psychological Ecosystem & Growing Together	Prof. Seongho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CUK)
	Presenter 2 The Buddhist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the Symbioses between Humans and other Species	Prof. Doheum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Presenter 3 A Study on Nature-God-Human Relationships in Korean Creative Myth <Chansega>	Prof. Sejeong O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enter 4 Law and Evolution	Prof. Seongjo An (Department of Law, Jeju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Moderator : Prof. Syng-hwan Shin (Department of Philosophy, CUK)

Session 1

제4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시상식

The 4th Annual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Ceremony

Session 2

Man and Nature | Hiroshi Yamamoto 총장

T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 Br. Raymundo Suplido 총장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 | Han-Sun Chiang 총장

Man and Nature | **Prof. Hiroshi Yamamoto**

The Ecological Education of Millenials | **Prof. Br. Raymundo Suplido**

Health & Sustainable Environment : On Trends of Greener Hospitals | **Prof. Han-Sun Chiang**

Session 3

학생참여 프로그램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존재와 성장_인간과 생태공동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은 의무화되어야 하는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가?

유전자변형 작물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가?

재생 불가능한 초국경적 자원인 수자원 사용에 대해 국가는 절대적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Existence and Growth_Human and Ecological Community

Shoul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be compulsorily enforced?

Should the nuclear energy development persist?

Are Genetically Modified Crops necessary in human life?

Should countries exercise sovereignty over the use of water resource that are non-renewable,
cross-border resource?

Session 4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심리생태계와 동반성장 | **조성호 교수**

생명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불교적 분석과 대안 | **이도흠 교수**

한국 창세신화 <창세가>에 나타난 자연, 신, 인간의 관계 | **오세정 교수**

법과 진화론 | **안성조 교수**

Psychological Ecosystem & Growing Together | **Prof. Seongho Cho**

The Buddhist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the Symbioses between Humans and other Species | **Prof. Doheum Lee**

A Study on Nature-God-Human Relationships in Korean Creative Myth <Chansega> | **Prof. Sejeong Oh**

Law and Evolution | **Prof. Seongjo An**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Themes of the Forum

1. 포럼 주제 선정의 기본 방향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이하 BWL Forum)의 주제 선정 형식은 중장기(10년)와 단기(1년) 형식을 통합한 '장·단기 통합형'으로 한다.
- 이 방식은 10년 주기와 1년 주기 형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10년 주기 형식은 향후 10년간의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정해진 주제에 따라 포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 및 강사 초청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 반면, 1년 주기 형식은 그 시기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 수 있기에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BWL Forum은 위의 두 가지 형식의 장점을 살려, 기본적으로는 10년 주기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 하되, 강연 하나는 '열린 주제'(open theme)로 남겨두어 그 해의 이슈에 알맞은 주제로 선정한다.

2. 포럼 주제 선정 방식

- BWL Forum의 주제 선정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0년 주기 포럼은 9년(3년+3년+3년)+1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9년 동안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포럼을 진행하고, 마지막 해에는 9년 동안 개최되었던 포럼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 주기 포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포럼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대주제 선정 →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 주제(어) 선정 → 발표 주제 선정

1) 대주제 선정

- 'BWL Forum 연구위원회'에서 포럼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10년을 주기로 포럼의 대주제를 선정한다.
- 이 대주제는 향후 10년 동안 포럼을 이끄는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1) 포럼방향 설정

- 9년을 세 부분(3년+3년+3년)으로 구별하여 각 부분의 포럼방향을 정한다.
- 포럼방향은 대주제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3년), 현실 상황(3년), 미래를 향한 노력(3년)을 기본틀로 삼는다. 예를 들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첫 3년은 공동체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들을 다루고, 두 번째 3년은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마지막 3년은 공동체의 미래적 모습을 다루는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1. Basic Direction in the Selection of the Theme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BWL Forum) takes a unified approach in the selection of the forum theme by combining the long- and short- term themes.
- This approach aims to emphasize the merits of both the 1-year and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llows us to prepare for the forum every year with a pre-set theme, thus providing stability in selecting forum themes and inviting speakers accordingly.
- The 1-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enables us to select a theme that is sensitive to pending social issues and the needs of the given period. Through this selection process, BWL Forum will be able to reflect upon society's most prevalent demands.
- The BWL Forum will follow a theme selected under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nd one of the lectures will be set aside for "an open topic" to reflect upon the pending issue of the given year.

2. Forum Theme Selection System

- The BWL Forum takes the following approaches in selecting its themes.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e 9-year cycle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and the 1-year cycle.
- For the first nine years, the forum will proceed with the selected themes. In the tenth year, the forum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the previous themes covered in the last nine years and preparing for the next 10-year period.
- The theme of the forum is selected as follows: Select a general theme → Set the direction and guidelines for the forum / Set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Select a theme (key words) → Select a presentation topic.

1) Selection of a General Theme

- The BWL Forum Research Committee selects a general theme under the 10-year cycle selection system.
- The selected general theme serves as the keyword that leads and guides the forum for the next 10 years.

2)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1)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first nine years will be divided into three segments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Each segment will be assigned a direction.
- The direction of the forum will be set within the framework of principal topics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three years), specific issues (for three years), and efforts for the future (for three years). For example :

(2) 주제 범주 설정

-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의 방향과는 별도로, 대주제에 속하는 하위 범주를 3가지 선정한다. 예를 들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는 가능한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
- 주제 범주를 세 가지로 정하는 이유는 원칙, 현실, 미래의 방향이 각각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포럼방향과 주제 범주의 연결

- 포럼방향의 기본틀인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에는 각각 세 가지 주제 범주가 배치된다.
- 예를 들어 포럼방향을 '원칙', '현실', '미래'로 설정하였고, 주제 범주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로 선정하였다고 할 때, 포럼방향을 '원칙'으로 설정한 첫 해에는 주제 범주의 '가정 공동체'를, 둘째 해에는 '사회 공동체'를, 셋째 해에는 '자연 공동체'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포럼 방향을 '현실'로 설정한 3년과 '미래'로 설정한 3년도 '가정 공동체'(첫 해), '사회 공동체'(둘째 해), '자연 공동체'(셋째 해)로 배치한다.
- 이 두 가지(세 가지 포럼 방향, 세 가지 주제 범주)는 매년 포럼의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3) 주제(어) 선정

- 포럼의 방향과 주제 범주에 맞춰 주제(어)를 선정한다.

4) 발표 주제 선정

- 포럼 발표자가 포럼의 대주제, 포럼방향, 주제 범주 및 당해 연도 주제(어)에 맞는 발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열린 주제

- 열린 주제는 'BWL Forum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포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포럼 준비단계에서 참가자들(학생, 교수,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o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the fir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dealing with the principal topics related to "community."
- o The nex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the discussions of specific issues prevalent in various communities.
- o The la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efforts for the future of the communities.

(2) Setting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In addition to the basic outline sketched above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three categories will be established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example,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such categories as "family," "social communities," or "natural communities" can be selected as possible theme categories.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three categories so that they match the basic directions of the forum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3) How to Connect the Direction of the Forum to the Scope of Theme Category

- The forum will take three different directions during the 3-year span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For instance,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principal topics" for the first 3-year spa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family," "social community," or "natural community," then the first-year forum will deal with "family," the second-year forum, "social communities," and the third- year forum, "natural communities."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specific issues" or "the future" for the proceeding 3-year spans, the same sequence of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communities, and natural communities- will be covered.
- These two elements (three forum directions/ three theme categories) become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theme of every forum.

3) Selection of Topics

- Topics ar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forum directio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4) Selection of the Presentation Topic

- The forum speak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general theme, the direction of the forum,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and the keywords of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so that they have ample time to prepare an appropriate presentation topic.

5) Open Topics

- The members of the 'BWL Forum Organizing Committee,' decide on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while planning the forum. A variety of methods are used to select the year's open topic; one of the international pending issues can be selected by the committee, or a different topic can be chosen through a vote by the participants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of the forum.

3.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 주제 (2011~2020년) (안)

- ◆ 대주제: 인간과 공동체
- ◆ 주제 범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

1) 제1~9차 BWL Forum

차수	포럼방향	주제범주	주제(어)	관련 주제어	열린 주제
제1차	공동체의 형성(원칙)	가정 공동체(I)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포럼 취지, 인본주의/ 만남, 대화, 관계, 공동체	포럼이 개최되는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선정
제2차		사회 공동체(II)	배려와 정의	배려, 정의, 형평, 진실성	
제3차		자연 공동체(III)	생명: 존재의 시작	생명, 창조	
제4차	공동체의 발전(현재)	가정 공동체(II)	결혼과 출산	사랑(인격적 일치), 결혼, 출산, 불신, 이혼	
제5차		사회 공동체(II)	참여와 나눔	참여, 나눔, 공동선, 지구촌, 열린 공동체, 기아, 양극화	
제6차		자연 공동체(II)	존재와 성장	기후, 물, 자원, 고갈, 오염, 재해, 변화	
제7차	공동체와 책임(미래)	가정 공동체(III)	신뢰와 용서	용서, 화해, 존중, 신뢰, 인격, 헌신	
제8차		사회 공동체(III)	자유와 책임	자유·의지, 의무, (공동)책임, 책무	
제9차		자연 공동체(III)	보존과 미래	보존, 평화, 책임 있는 공동체	

-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갖는 BWL Forum의 첫 번째 10년의 포럼방향은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공동체와 책임'이다.
-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시작 혹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정(제1차 포럼), 사회(제2차 포럼), 자연(제3차 포럼)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포럼이다.
- '공동체의 발전'은 제4차~제6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현실 상황과 문제점, 현실 속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 '공동체와 책임'은 제7차~제9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포럼에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노력과 책임 등을 제시될 것이다.
- 관련 주제어는 주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주제들로서, 주제(어)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다.

3. The Themes of the First 10-year span BWL Forum (2011~2020) (Proposal)

- ◆ General Theme : Human Being and Community
- ◆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and Natural Communities

1) The 1st~9th BWL Forum

Year	Direction of Forum	Theme category	Topics	Related Keywords	Open Topics
1	Formation of Community (Principles)	Family(I)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Purpose of the forum, humanism, meeting someone, dialogue, relationship and community	One of the pending international issues raised during the year of the forum
2		Social Communities(II)	Compassion and Justice	being considerate toward others, justice, fairness and truthfulness	
3		Natural Communities(III)	Life: Beginning of Beings	life, creation	
4	Development of Community (Present)	Family(II)	Marriage and Procreation	love (humanistic unity), marriage, procreation, distrust, and divorce	
5		Social Communities(II)	Participation and Sharing	participation, sharing, communal good, global community, open community, starvation and polarization	
6		Natural Communities(II)	Existence and Growth	climate, water, natural resources, exhaustion, pollution,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7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uture)	Family(III)	Trust and Forgiveness	forgiveness, reconciliation, respect, trust, personality, devotion	
8		Social Communities(III)	Freedom and Responsibility	free will, du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9		Natural Communities(III)	Conservation and Future	Conservation, peace, responsible community	

- The BWL Forum will take place under the general theme of "Human being and Community" and the directions of the forum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ten years.
- The direc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forums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which will deal with the beginning or forming of a community. We will discuss how communities such as family (first year), social communities (second year), and natural communities (third year) are formed and what is needed to form a community.
- The direction for the fourth, fifth, and sixth forums will be "Development of Community." We will look into examples of today's family, society, and nature, and discuss the pending issues and problems they face. We will also examine how these communities develop in reality.
- The direction for the seventh, eighth, and ninth forums will be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These three forums aim to envision the future of family, society, and nature. These forums will make concrete suggestions concerning the effort required and responsibility we have to create better communities in the future.
- Related keywords can be used to replace given topics. They are added to further explain the general direction set by each topic.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 Themes of the Forum

(1) 제1차 BWL Forum

- 제1차 BWL Forum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막 구성은 1차 포럼 이후 10차 포럼 때도 활용한다.

① 제1막

- 주제 : 가톨릭 인본주의
- 이덕효 신부, Jenkins 총장의 주제 강연
- 발표주제 1 : Bernard Lee의 인본주의 정신(이덕효 신부)
- 발표주제 2 : 가톨릭 휴머니즘과 가톨릭 대학(Jenkins 총장)

② 제2막

- 주제 :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 제1차 포럼의 주제인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에 대한 주제 강연

2) 제10차 BWL Forum

- 10차 포럼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일제 포럼의 경우, 오전 시간은 1막, 오후 시간은 2막이 될 수 있다.
- 제1막은 9차까지의 '제1차 10년 주기 포럼'을 총정리 하는 시간이다.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의 대주제를 개관해 주는 시간이다.

(1) 제1막

- 주제 : 지구 공동체
- 관련 주제어 : 화해와 평화
- 이 부분의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주제는 '지구 공동체'이다. 주제에서 암시하는 대로, 10차 포럼에서는 9년간 살펴보았던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화해와 평화'는 하나의 가능한 주제어이다. 화해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 계층에서 서로 다른 신념, 가치, 이상, 종교, 이데올로기 등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등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화해는 이전 포럼에서 살펴본 주제(어)들과도 연관된다. 진실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에 '참여' 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향해 '자유'롭지만 '책임'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가진 것을 '나눔' 때 현실화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막

-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서막 역할을 한다.
- 이 시간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을 홍보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주제(어)는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이 확정된 후 정하도록 한다.

(1) The 1st BWL Forum

- The first BWL Forum will consist of two sessions. The tenth forum will also follow the two-session system.

① The First Session

- Theme : Catholic Humanism
- Speakers : Rev. Paul D. Lee, and Archbishop Paul S. Coakley
- Topic 1 : Bernard Lee's Humanism Spirit (Rev. Paul D. Lee)
- Topic 2 :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Archbishop Paul S. Coakley)

② The 2nd Session

- Theme :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a community
- Keynote speech on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the theme of the 1st forum.

2) The Tenth BWL Forum

- The tenth forum will also consist of two sessions. If organized as a whole-day program, the first session will be held in the morning and the second session in the afternoon.
- The first session of the tenth forum will be devoted to summarizing the previous nine forum themes that were covered under the first 10-year cycle forum system. The second session will be devoted to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themes covered in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system.

(1) The First Session

- General theme: The Global Community
- Related Keywords: Reconciliation and Peace
- The general theme of the 10th BWL Forum will be "Global Community." As implied in the theme, the 10th forum aims to provide us with an integrative view of all the themes - "family," "society" and "nature" - discussed in the previous 9 years.
- "Reconciliation and Peace" is one possible keyword for the forum. Reconciliation is a practical path to peace. Only through genuine efforts of reconciliation amongst people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different beliefs, different values, different ideals, different religions, and different ideologies,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and amongst nations can we achieve real peace in this world.
- Furthermore, "reconciliation" is related to the themes of the previous forums. In order to achieve genuine reconciliation, we must first "meet" and "participate in" dialogues. We must approach others with "thoughtfulness," "respect," and "trust." We must make efforts to "forgive" one another. We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better "future" together in a free, but responsible, atmosphere by preserving what we are and sharing what we have.

(2) The Second Session

- The second session will serve as a prelude to the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session will also be devoted to articulating the themes of the upcoming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topics will be chosen when the schedule for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is decided upon.

제6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6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발행인 「제6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발행일 2016년 10월 6일

운영위원장 구 본 만 (학부대학장)

운영위원 김 용 석 (국제교류처장)

윤 정 우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이 상 민 (학부대학 교수)

방 담 이 (학부대학 교수)

김 상 수 (총무팀장)

원 천 우 (대외협력팀장)

김 두 검 (학부대학운영팀장)

구 주 희 (국제교류팀)

김 진 수 (학부대학운영팀)

진 행 제6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디 자 인 양승주

제 작 한기희

문 의 제6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Tel. +82_2_2164_4931
